

# 디자인씽킹·린 스타트업 프로세스를 활용한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이 창업 사업화에 미치는 사례 연구

김재현\*, 박문수\*\*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대학 창업동아리 활동이 대학의 지원을 통해 어떻게 대학생들의 창업 의도 확대 및 창업 사업화가 진행되는지 사례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창업동아리 활동이 대부분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창업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은 D 대학의 2021년~2022년 2년간 연속으로 창업동아리 지원을 받은 5팀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하였으며 창업동아리 지원 프로세스의 함의는 첫째, 4단계의 체계적인 대학의 창업동아리 지원 프로세스는 창업동아리 사업화 및 창업 의도 향상이 가능했다. 둘째, 창업동아리의 사업화 및 창업 의지 향상은 창업동아리의 개별 노력뿐 아니라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씽킹과 린 스타트업이라는 선진화된 방법론이 대학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한계로서 5개 팀의 창업동아리의 사례분석으로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향후 양적 연구를 위한 탐색적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핵심주제어 : 디자인씽킹, 린 스타트업, 대학 창업동아리, 창업지원 프로세스, 창업 사업화, 창업의도

## 1. 서 론

### 1.1 연구목적

대학에서의 창업 활동과 창업 사업화에 대한 관심은 국가적 차원 및 사회경제적 차원으로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경제 갈등 대외 경제 위기를 통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2023년의 상황에서 어려운 경제 위기를 수출에만 의존하지 말

고, 새로운 기업의 성장과 창업 성장을 통해 극복해보자는 정책적 판단도 한 몫을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2). 그런 차원에서 청년 창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대학의 학생 창업이고, 대학에서는 창업동아리라는 팀 활동을 통해 창업 마인드를 고취하고, 창업의 전략, 의도, 및 창업 사업화를 수행한다.

학생 시절부터 창업을 경험하고, 시도한다는 차원에서 창업동아리는 창업교육 및 사업화 부문에서 정책적이고 전략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2013년 대학 창업 교육 5개년계획부터 교육부의 핵심적인 창업교육 정책의 수단으로 기능

\* 제1저자, 단국대학교 다산링크3.0사업단 산학협력중점조교수, fuco0706@dankook.ac.kr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공공보건과학대학 공공정책학과 조교수, amhaeng@dankook.ac.kr

하고 있다(교육부, 2013). 국가정책적으로 창업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정부는 대학정보공시 및 대학산학협력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국 대학의 창업동아리를 추적 분석하는 등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22). 그런 차원에서 창업동아리는 대학 창업 활성화라는 목표와 성과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간 선행 연구는 개인의 의지와 성향이 창업교육과 창업동아리를 통해 창업 의도 또는 창업 성과로 연결되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창업동아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블랙박스가 존재해왔다.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왜 창업 의도나 창업 성과가 창출되는지 분명치 않고, 창업동아리의 어떤 활동이 창업 의도가 높아지거나 창업 사업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창업동아리가 정책적으로 의도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는 더욱 블랙박스의 내용은 풀어 내어야 할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창업동아리 활동 및 대학의 지원을 통해 어떻게 대학생들의 창업 사업화가 진행되는지를 사례를 기반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학술적이고 정책적으로 부족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창업동아리 활동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창업 사업화로의 연결 고리를 찾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2.1 대학의 창업동아리 정의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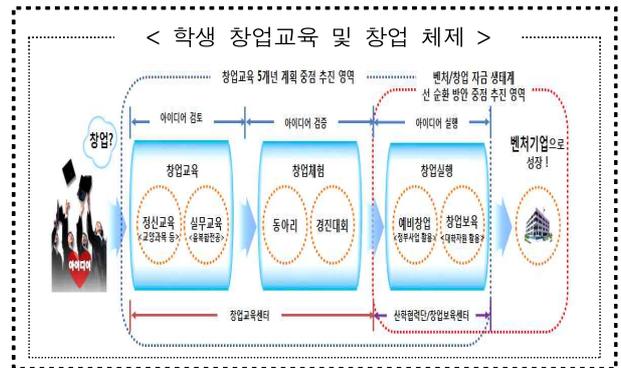
앞서 설명했듯이 대학의 창업동아리는 교육부 등 정부 부처가 정책적이며 의도적으로 설립한 창업 활성화 제도의 일환으로 발전하였다. 그에 따라 대학 창업동아리의 정의는 대학정보공시 및 대학산학협력실태조사에서 제시된다. 그 의미는 대학(원)생이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로서 대학(창업교육 전담조직 포함)에 등록을 하고 지도교수(전임, 비전임 포함)가 있으면서 참여인원 수가 2인(대표 포함) 이상인 동아리 모임을 말한다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정책적 맥락에서 대학 창업동아리 현황은 대학의 공신력 있는 대표 지표인 대학정보공시에서 비교과 부문의 자율활동을 측정하는 거의 유일한 지표로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측정 및 분석되어 왔다. 대학 창업동아리는 정부의 의도적인 지원과 전략으로 탄생한 제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 창업동아리의 현황을 분석하면, 2017년 5,596개, 2018년 5,711개, 2019년 5,960개로 가장 확대되었다가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 감소하여 5,352개, 2021년 5,410개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22).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가 아니었다면 지속적으로 대학 전반의 비교과 창업 활동으로 정착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대학 창업동아리 육성지원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 2013년 발표한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에서 대학생 창업 도전을 위한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하에 학생창업 도전 환경 조성을 위해 실전 창업동아리 지원, 연합 창업동아리 육성, 글로벌 차원의 창업동아리 연계 등을 정책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의 핵심 비전으로서 창업동아리가 창업 체험 활동으로 명시되어 정책에 반영된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창업동아리라는 비교과 활동을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라는 정규 교과와 연계하여 학생창업시 창업동아리 활동이 현장실습 교과로 인정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발전시켰다. 해당 제도 역시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분석되고 관리되고 있다.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창업 대체학점인정제를 시행하는 대학이 2017년 104개에 불과했으나 2019년 123개, 2021년 138개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림 1>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의 창업동아리 체계화

### 2.2 대학의 창업동아리 관련 선행 연구

대학의 창업동아리와 관련된 연구는 창업동아리에 대한 태도와 활동 유무에 따라 창업 사업화 및 창업 성과와의 연관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Bagozzi, 1998). 대표적인 특성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창업동아리의 다양한 특성이 창업 성과 및 의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가설에 기반한 연구이다(Ajzen, 1991,

김수진·김종성(2020). 신정신·이재은(2018)의 경우 창업 동아리의 몰입도, 팀워크, 갈등 관계가 창업동아리의 효과성에 미치는 연구를 수행했으며 창업동아리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가적으로 이재은(2020) 연구에서는 창업동아리 구성원의 전공 다양성이 동아리 효과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다만, 창업동아리의 효과성만을 제시하여 궁극적 목표인 창업 사업화와의 연관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원길 외(2016)는 창업동아리 활동 태도가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홍효석 외(2013), 김경애·김용태(2022)의 연구에서도 창업동아리의 경험 유무가 창업 인식 및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 있다.

둘째, 창업동아리를 핵심 독립변수로 활용하지 않고, 창업교육, 멘토링, 개인적 특성 등과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창업 사업화와 창업 의도에 핵심 요소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이다(김경애, 2013). 이경주·김은영(2018)의 경우 특허보유, 창업교육강좌, 창업동아리보유 등을 병렬적으로 대학 창업생태계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학생 창업수를 분석하였다. 조지혜(2019)에서도 예비 창업가의 창업결정과정 등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기업가적 성향, 창업동아리 경험, 창업 역할 모델의 구축 등의 여러 변수 중 창업동아리를 하나의 변수로 제시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 이감용(2021)에서도 대학의 창업지원제도를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정규교과과정, 비교과과정을 설명하였으나 창업동아리 특정하여 역할과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기존 선행연구의 두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창업동아리를 집중하여 분석한 연구는 창업동아리의 현재적 특성만을 검토하고 창업동아리 참여자의 자율적 발전이라는 가정하에 접근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의 창업동아리는 앞서 검토했듯이 정책적 노력에 의해 이식된 제도이며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하고 진화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학생 팀 단위의 노력뿐 아니라 대학 본부 및 관련 기관 등에 의해 적극적으로 지원되어 성장 발전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인 창업동아리를 하나의 병렬적 변수로만 검토하는 것은 창업동아리의 심층적인 분석에는 적절치 않다.

### 2.3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 관련 선행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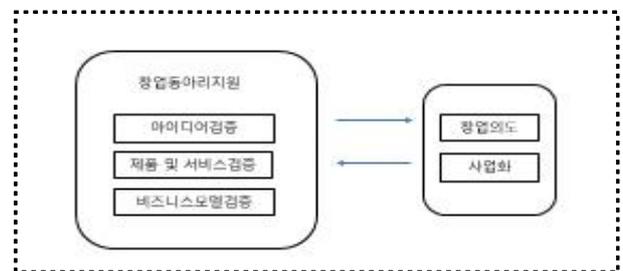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왜 창업동아리를 참여하면 창업 의도가 높아지거나 창업 사업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정부 및 대학 지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학생 개인 및 팀 단위 자발적 노

력뿐 아니라 정부 및 대학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적 지원은 창업동아리의 성장과 진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안태욱·이인아(2017)의 연구에서는 멘토링 교육 및 활동이 창업의지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 차원에서 지원되는 멘토링 활동이 대학생들의 창업 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하여 정부 및 대학 차원 다양한 창업동아리 지원들이 어떻게 대학의 창업동아리 학생의 창업의도와 창업사업화로 진화됨을 이끄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3.1 연구모형



<그림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디자인씽킹과 린스타트업을 활용한 선행연구와 현재 수도권 소재 D 대학에서 수행하는 실행모델을 통합하여 도출하였다.

디자인씽킹은 문제 해결 방식이자(Cross, 2011)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 사고과정(Dorst, 2011)이다(정재희, 2019). 디자인씽킹은 5단계로 구성된다. 공감-문제정의-발상(아이디어내기)-프로토타입-테스트로 규정되며 각 과정의 순차적인 진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각 과정을 되돌아갈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이다(김자인, 2015. 남정민 외 2021). 특히 ‘공감’의 단계는 디자인씽킹 프로세스 중 가장 중요한 핵심 단계이다(정재희, 2019, 박지유·이은정 2020). 정의 단계는 문제를 명확하기 위해 공감 단계에서 발견된 조사결과를 수렴한다(김자인, 2015). 이 과정은 디자인씽킹 5단계중 가장 힘든 단계로 본 연구모형의 아이디어검증에 해당하며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발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김자인, 2015). 발상은 폭넓게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창의적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법이며 브레인스토밍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프로토타입과 테스트는 아이디어의 프

로토타입으로 재현하고 소통하고 피드백을 통해 수정과 해결책을 도출하게 된다(김자인, 2015, Kathleen, 2010).

린 스타트업은 Steve Blank의 고객개발 모델과 린 생산 방식 등을 Eric Ries에 의해 만들기-측정-학습의 순환과정으로 이론화되었으며(Bagozzi·Yi, 1988) 지속적인 혁신을 만들어 내는 새로운 방식을 린 스타트업이라 정의되었다(Eric Ries, 2011, 애시모리아(2017)). 사업과 창업은 아이템이 고객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가설을 하나씩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다(신중경·하규수, 2013). 이러한 검증과정을 만들기-측정-학습 피드백을 통해 사업과정 내 빠르게 순환시켜 검증하는 것이 린 스타트업이다(김재현·남정민, 2018). 린 스타트업은 1단계 문제·솔루션 검증, 2단계 제품·서비스 검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서의 가능성을 검증한다(김재현·남정민, 2018).

본 연구는 아래 표에서와 같이 디자인씽킹과 린 스타트업을 이용한 3단계 대학의 창업동아리 지원(아이디어 검증·제품서비스검증·비즈니스모델검증)을 통해 대학의 창업동아리의 창업의도 및 사업화의 발전 모델을 수립하였다.

<표 1> 창업동아리 대학지원 프로세스

창업동아리 지원단계	내용
1단계 아이디어검증	- 창업자의 사업 아이디어가 사업화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확인(사업의 아이디어 검증) - 낮은 수준의 MVP 검증(솔루션 검증)
2단계 제품 및 서비스 검증	-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 및 서비스 기능이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검증 - 높은 수준의 MVP 검증
3단계 비즈니스모델 검증	- 수익모델, 채널 적용 등을 통해 핵심지표 측정하고 이에 따른 결과가 예상 또는 목표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4단계 창업의도 및 사업화	-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서의 가능성 검증 및 성과창출

출처: 김경애(2013), 조성주(2016), 남정민(2017), 김재현(2018), Zahara(1991)

### 3.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정부 및 대학의 창업동아리 지원이 창업동아리 학생의 창업의도 향상과 창업 사업화로 진화됨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수도권 소재 D 대학의 2021년~2022년 2년간 연속으로 창업동아리 지원을 받은 5팀으로 약 2년 동안 창업동아리 아이디어검증, 제품 및 서비스 검증, 사업화 확장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검증 등 3

단계를 수행한 팀이다. 5개의 대상 동아리는 1년에 2차례 이상의 동아리 자금과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받고 각 단계의 교육, 멘토링, 경진대회에 2회 이상 참여한 동아리이다. 대학의 창업동아리 지원기간은 2021년 5월~2022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 진행하였다. 특히 사업화를 위한 지자체 및 정부지원사업 지원 전에는 심층인터뷰(FGI)와 멘토링이 진행되었으며 각 동아리의 인터뷰는 총 5~7회 진행되었다.

<표 2> 연구대상 창업동아리 개요

순번	대표자 성명	대표자 나이	동아리 팀원	창업 분야	비고
A	조**	30	2	스마트셀프 염색헤어기기	
B	이**	26	5	B2B일정관리 솔루션	
C	국**	27	3	저작권료프리매 장음악서비스	
D	조**	27	2	로컬그래프트 소다제조	
E	설**	27	5	자율충전기술의 화제시드론	

## IV. 사례분석

### 4.1. 창업동아리별 대학 지원 프로세스 결과

창업동아리 A는 스마트 셀프 염색 헤어기기를 개발하는 2인의 창업동아리이다. 대학의 창업동아리 지원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1단계 대학의 동아리 지원에서는 타겟고객별 아이디어검증 및 피봇팅을 하였고, 2단계에서는 MVP테스트를 진행하였고, 3단계에서는 검증을 위한 MVP 제품판매, 사업자등록,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 사업화 단계에서는 법인전환을 완료하고,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청년창업사관학교 선정 등 약 1억4천만 원의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화를 확대하였다.

창업동아리는 B는 B2B 일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로 구성된 5인의 창업동아리이다. 1단계 대학의 동아리 지원에서는 타겟고객별 아이디어검증 100명, 3번의 피봇팅, 2단계에서는 솔루션 검증을 진행하였고, 3단계에서는 사업타당성검증과 비즈니스모델을 검증하였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경기도 우수창업동아리 등 약 1억 3천만 원의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화를 진행하였으며 SCALE UP을 위하여 투자 IR 등 사업화를 확대하였다.

창업동아리 C는 저작권로 걱정 없는 스마트 매장 음악 서비스로 기획자, 개발자로 구성된 3인의 창업동아리이다. 1단계 대학의 동아리 지원에서는 핵심고객 30명의 아이디어검증과 2번의 피봇팅, 2단계에서는 낮은·높은 수준의 100명의 MVP 동시검증, MVP 점포 오픈과 사업자등록, 3건의 지식재산권(특허 3건)등록, 3단계에서는 수익모델 집중검증, 4단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 경기도 생애 최초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약 1억8천만 원의 지자체와 정부 지원사업 등 사업화를 하였으며 현재 다수의 AC 및 VC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창업동아리 D는 국내 웰니스 음료 시장을 겨냥해 소다수를 제조하는 2인으로 구성된 창업동아리이다. 1단계 대학의 동아리 지원으로 약 300명의 아이디어검증과 수제 맥주 제조에서 규제로 인한 음료 제조로 피봇팅 2단계에서는 3차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약 400만 원의 매출과 500명의 높은 수준의 MVP 검증, 지식재산권 2건 등을 완료하였다. 3단계에서는 원가분석 및 유통채널 분석 등 핵심지표 검증을 했으며 4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 2022년 로컬크리에이터 및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선정 등 약 2000만원의 지원자금으로 사업화 진행 중이다.

창업동아리 E는 산림방재용 화재 AI 방재 드론이 아이템으로 공과대학 엔지니어 5명으로 구성된 창업동아리이다. 1단계 대학의 동아리 지원에서는 핵심고객 30명의 아이디어검증, 2단계에서는 5차례 기술력 검증을 위한 높은 수준의 MVP검증을 실시, 5건의 지식재산권(특허) 등록을 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집중적으로 기술타당성조사를 실시 하였다. 마지막 사업화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완료,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등 약 1억 3천만원의 지자체 및 정부지원사업으로 지원자금으로 B2B, B2G등의 사업화 진행 중이다.

<표 3> 창업동아리 지원 프로세스 결과

동아리	창업동아리 지원단계	검증 방법	내용
A	1단계 아이디어검증	50명 아이디어검증	1회 피봇팅 아이디어 검증을 통한 창업의지 고취
	2단계 제품 및 서비스 검증	낮은 수준 MVP 검증 100명	1차~2차 시제품제작 지적재산권등록(3건)
	3단계 비즈니스 모델검증	수익모델 검증, 핵심지표 검증, 제품판매	사업타당성, 핵심지표 검증, 사업자등록

동아리	창업동아리 지원단계	검증 방법	내용
B	4단계 사업화	창업의지 및 사업화	법인전환예비창업 패키지신청, 청년창업사관학교선정
	1단계 아이디어검증	100명 아이디어검증	3회 피봇팅
	2단계 제품 및 서비스 검증	낮은 수준 MVP 검증 100명	BETA 서비스 지식재산권등록(4건)
	3단계 비즈니스 모델검증	높은 수준 MVP 검증 100명, 수익모델 검증, 핵심지표 검증	사업타당성, 핵심지표검증, 수익모델검증
C	4단계 사업화	창업의지 및 사업화	사업자등록, PILOT서비스(판매), 경기도우수창업동아리, 청년창업사관학교
	1단계 아이디어검증	30명 아이디어검증	2회 피봇팅 아이디어 검증을 통한 창업의지 고취
	2단계 제품 및 서비스 검증	낮은·높은 수준의 MVP100명 검증	사업자등록, PILOT 점포, 지식재산권등록(3건)
D	3단계 비즈니스 모델검증	수익모델 검증	수익모델검증
	4단계 사업화	창업의지 및 사업화	초기창업패키지, 경기도최초청년창업지원
E	1단계 아이디어검증	300명 아이디어검증	3회 피봇팅, 아이디어 검증을 통한 창업의지 고취
	2단계 제품 및 서비스 검증	500명 MVP검증	클라우드펀딩 지식재산권(2건)
	3단계 비즈니스 모델검증	핵심지표 검증	원가분석, 유통채널분석
	4단계 사업화	창업의지 및 사업화	사업자등록, 제품판매, 소셜벤처유니버시티
F	1단계 아이디어검증	B2B 30명 아이디어검증	아이디어 검증을 통한 창업의지 고취
	2단계 제품 및 서비스 검증	높은 수준 MVP 검증 30명	1~5차 시제품제작, 지적재산권등록(5건)
	3단계 비즈니스 모델검증	핵심지표 검증	수익모델분석(B2B), 기술타당성
	4단계 사업화	창업의지 및 사업화	사업자등록, 예비창업패키지, B2G사업

## 4.2. 창업동아리 지원 프로세스의 함의

본 연구의 창업동아리 지원 프로세스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4단계의 체계적인 대학의 창업동아리 지원 프로세스는 창업동아리 사업화 및 창업 의도 향상이 가능했다. 이는 기존 연구의 창업동아리는 자연 발생적으로 성장하고 진화한 제도가 아니라 정책적 노력과 단계별 과정 및 지원을 통해 이식된 제도를 의미한다. 둘째, 창업동아리의 사업화 및 창업의지 향상은 창업동아리의 개별 노력 뿐 아니라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단계별 교육, 멘토링 지원을 통해 각 단계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통한 사업화가 가능했다. 또한, 창업동아리의 사업화는 최소 2년 이상이 시간이 필요하며 이 기간동안 창업동아리의 몰입도, 팀워크, 갈등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해야 하며 다양한 문제해결의 전담인력 및 담당 멘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씽킹과 린 스타트업이라는 선진화된 방법론이 대학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업은 아 아이템이 고객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가설을 하나씩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다(신중경·하규수, 2013). 린스타트업 등 선진화된 방법론은 창업동아리의 고객검증 및 제품·서비스 검증에도 적합한 방법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창업에 관심있는 대학생들의 창업동아리 활동 및 대학의 지원을 통해 어떻게 대학생들의 창업 사업화가 진행되는지를 사례 기반으로 분석을 하였다. 대학의 창업동아리 지원을 통해 창업동아리 사업화 및 창업의도 향상이 가능하며 이는 창업동아리의 자체 노력뿐 아니라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는 분명하다. 5개팀의 창업동아리를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는 전국 대학의 창업동아리의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경험, 동질성, 신뢰성 확보라는 질적연구의 접근방법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향후 연구를 위한 탐색적 연구로서 학문적 가치가 있으며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한 대학의 심층적인 노력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데에서 실무적,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김경애(2013). 소상공인의 심리적 특성, 창업가 정신, 창업만족, 창업추천의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디저트 카페 창업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김자인(2015). 디스쿨(d.School)의 디자인사고 교육.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5(4), 97-108.
- 김재현·남정민(2018).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진단과 컨설팅을 위한 린 스타트업의 활용 사례연구." **벤처창업연구** 13(4), 183-196.
- 김수진·김종성(2020). 예비창업자의 창업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4(1), 180-208.
- 교육부(2013).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2023.3.24). <https://www.moe.go.kr>. 교육부.
- 교육부·한국연구재단(2022). 대학 산학협력실태조사보고서.(2023.3.22.). <https://www.nrf.re.kr/index>. 한국연구재단.
- 김용태(2022). 디지털 리터러시와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체험형 창업교육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6(4), 103~124.
- 남정민(2017). 기업가정신 온라인교육의 효과성 검증: 플립러닝 및 PBL 기반 기업가정신교육 적용 사례. **벤처창업연구**, 12(2), 31-40.
- 남정민·김재현·홍혜영·고일권·권용석·오세호·조재성·이정욱·김도희(2021). 기업가정신과 창업. 사람과 경영.
- 박지유·이은정(2020). "효과적인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 교육 방안 - 공감 단계를 중심으로 -." **한국디자인포럼** 25.2, 139-148.
- 신정신·이재은(2018). 창업동아리의 조직적 특성이 창업동아리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 13(6).
- 신중경·하규수(2013). 창업실패 요인 분류 및 실패 패턴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1(5), 257-265.
- 안태욱·이인아(2017). 멘토링 교육이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 대학 창업동아리 활동을 조절효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1(3), 141-161.
- 애시모리아(2017). 실리콘밸리를 뒤쫓는 IT 창업가이드. 한빛미디어.
- 이감용(2021). 대학의 창업지원제도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컨설팅연구**, 21(1), 375-385.
- 이경주·김은영(2018). 대학 창업생태계의 특성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 특히, 창업교육, 창업동아리의 개별효과와 상호보완효과를 중심으로. **공학교육연구**, 21(6), 108-117.
- 이재은(2020). 창업동아리 구성원의 전공다양성이 창업동아리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연구**, 34(1), 173-198.
- 조성주(2016). 린스타트업바이블. 새로운 제안.
- 조원길·박철영·정화민(2016). 대학창업동아리 창업의도 영향요

- 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경제연구**. 14(1). 69-89.
- 조지혜(2019). 예비창업가 대학생의 창업결정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20(2). 229-251.
- 정재희(2019). 디자이너의 공감 능력과 공감 시도가 디자인 결과물에 미치는 영향. **산업디자인학연구**. 13(2), 70-81.
- 중소벤처기업부(2022). 2022년 중소기업부 업무계획. (2023.3.21.). <https://www.mss.go.kr>. 중소기업부.
- 홍효석·설병문(2013). 창업교육과 창업동아리 경험이 청년창업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8(2). 141-151.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Bagozzi, R. P., & Yi, Y.(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 Cross, N. (2011). Design thinking: Understanding how designers think and work. *London:Berg*. 3-30
- Dorst, K. (2011). The core of 'design thinking' and its application. *Design Studies*. 32, 521-532.
- Kathleen R. Allen.(2010). **New Venture Creation: An Entrepreneurial Approach**. South-Western.
- Ries, E.(2011). *The Lean Startup: How Today's Entrepreneurs use continuous innovation to create radically successful business*. NY: Crown Business.
- Zahra, S. A.(1991). Predictors and Financial Outcomes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4), 259-285.

[abstract]

## A Case Study of University Startup Club Support Using Design Thinking and Lean Startup Process on Start-up Commercialization

Jaehyun Kim\*, Munsoo Park\*\*

This study analyzed how university start-up club activities expand university students' start-up intentions and commercialize them based on the problem that it is not clear why start-up intention or start-up performance is created through start-up club activities. The study conducted a case analysis of five teams that received start-up club support for two consecutive years from 2021 to 2022, and the implications of the start-up club support process were first, and the four-stage systematic start-up club support process was able to commercialize start-up clubs and improve start-up intentions. Second, it can be seen that not only the individual efforts of the start-up club but also the active support at the university level are essential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start-up club and the improvement of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advanced methodologies such as design thinking and lean startups are actively used in the university field. However, there is a difficulty in generalization due to the case analysis of five start-up clubs. However, this study means that it is valuable as an exploratory study for future quantitative research.

**KeyWord:** Design thinking, lean start-up, university start-up club, start-up support process, start-up commercialization, start-up intention

---

\* First Author,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assistant Professor, Linc+ Business, Dankook University, fuco0706@dankook.ac.kr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policy, Dankook University, amhaeng@dankook.ac.kr